

후보등록 당시 1위가 당선...이번 주말 승패 판가름

역대 대선으로 살펴본 지지율과 득표율 상관관계

제19대 대선 후보 등록일(15일~16일)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을 전후한 1주일의 지지율이 대선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서로 연일 맹공을 가하며 ‘전략적으로’ 지지율 1위를 굳히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양측은 이번 주 내에 당 선대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는 등 진용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약 등을 점검하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시점 표시이 승부까르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표시이 대선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등록 당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5·9 장미 대선’ 결과도 후보 등록일(15~16일)을 전후한 이번 주와 다음 주(11일~22일)에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은 경우 후보 등록일(11월 25~26일) 직후인 26~28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선 양자 구도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47%,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4%를 기록했다. 3%P 격차였다. 무응답층은 9%였다. 본선인 12월19일 대선에서 박 후보는 51.6%, 문 후보 48.0%로 3%P 안팎의 비슷한 격차를 보이며 박 후보가 당선됐다.

문 후보는 선거 초반 24%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당시 무소속이던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앞둔 11월 23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경종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본선에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후보 등록일(11월 25~26일) 전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2위인 정동영 대통령민주당 후보와 약 20%P 격차를 보였고, 결국 본선에서 48.7%로 2위인 정 후보(26.1%)를 물리쳤다. 앞서 2002년 제16대 대선과 1997년 15대 대선에서도 후보 등록일 시점의 지지율과 대선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등록일 이후 선거일까지 2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후보 등록일 이후 일주일 이내 지지율이 사실상 굳어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진정한 적폐청산’ 키워드

안철수 ‘50% 이상 득표’ 내세워

연일 파상 공세...지지율 1위 싸움

◇지지율 1위 굳히기 총력전=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연일 서로 향해 검증 공세를 퍼부으며 선거 초반 주도권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거티브의 경계를 넘나드는 높은 수위의 공방전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대선 판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한방’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측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에 따라 본선 전략을 일부 수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적폐청산 세력과 적폐세력 간의 대결 구도로 봤다면 5차 대결 속 사실상 양강구도로 시작한 본선에서는 ‘진정한 정권교체’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탄핵 정국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같은 길을 걸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로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시선은 ‘더 나은 정권교체’로 옮겨갔다.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반 판세에서 문 후보가 진정한 정권교체를 구현하기 위해 던진 카드는 비전과 정책 승부다. 경선과정에서 강조했던 ‘준비된 후보론’인 셈이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양강구도’ 형성에 성공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0% 이상의 득표’를 호소하면서 ‘미래·유능·통합’의 후보를 앞세워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안 후보는 10일 청년정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50% 이상의 지지를 모아주셔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면서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앞두고 50% 이상 득표율을 깨는 것은 여세를 몰아 지지층 확장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갈 곳 잃은 중도·보수층을 더욱 끌어들이고, 문 후보 측 지지기반을 흔들며 진보층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방문, 시선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하남시장 4·12 재보선에 출마한 유형욱 후보 지원 유세에 참석해 유세차에서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텃밭 호남권 지지율 지각변동

10%P 이상 앞섰던 문재인 제자리...안철수 2배 이상 상승 ‘접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선구도에 지각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다수의 여론조사기관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호남지역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줄곧 15~20%포인트 차로 선두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 주말 실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지지율을 두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문 후보를 앞서거나 문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였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응답률은 19.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가상 5차 대결에서 문 후보(37.7%)와 안 후보(37.0%)는 접전 양상을 보였지만 호남에서는 안 후보(50.7%)가 문 후보(39.9%)를 10.8%P 앞섰다.

연합뉴스와 KBS가 지난 8~9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에 따르면 5차 구도에서 안 후보는 전국 지지율 36.8%

로 문 후보(32.7%)를 추월해 1위를 기록했다. 호남에서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3월 조사(11~12일) 13.6%에서 41.7%로 세배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36.6%에서 38.0%로 1.4%P 오르는 데 그친 문 후보를 제쳤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8~9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응답률은 2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다지구도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은 37.7%로 같았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안 후보 45.1%, 문 후보 41.9%의 지지율을 보였다. 1주일 전(51.4% vs 33.7%)에 비해 문 후보는 10%P 가까이 빠졌고, 안 후보는 10%P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신문과 MBC가 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 결과, 호남지지율은 문 후보(43.4%)가 안 후보(38.2%)를 5.2%P 앞섰다.

위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희상 “文-安은 협치 대상...막가는 헐뜯기 안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의원은 10일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중 정부 초대 정무수석, 노무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당까지는 어렵더라도 협치 또는 연정, 나아가 공동정부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이 대목을 심각하게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이 되면 안철수가 되는 당선된 이후에 (생길) 이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서로 막가

는 정치가 된다. 이런 정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양강구도를 형성한 문-안 후보측이 도 넘는 네거티브 공방과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양측간 협치와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두 진영은 개혁과 혁신을 앞장서서 실행해야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 협치가 안되면 (개혁과 개혁입법) 불가능하다. 그런 정치도 아니고,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한다는 그들의 말들은 다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두근두근 두근두근
푸통푸통 타이완

“오감이 두근두근 타이완은 맛있다”

www.putongputong.com 에서 여진구의 푸통푸통 타이완을 확인하세요
타이완 관광청 서울사무소 ☎ 82-2-732-2357-8 http://www.tourtaiwan.or.kr

Taiwan THE HEART OF ASIA